

21세기 화두

“정보화”

‘컴퓨터로
농사짓는다’라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로
이제 우리 농사 현장
곳곳에서 컴퓨터로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컴퓨터, 우리 실생활에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수히 많다. 앞으로
일년동안 ‘컴퓨터’와
‘정보’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나가기로 한다.

밀

레니엄 시대는 ‘정보화’를 빼놓고는 화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21세기의 화두는 단연코 ‘정보화’가 되고 있다.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정보를 확보하는 사람이 부와 권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하며, “정보혁명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나 사회, 조직, 개인은 경쟁대열에서 반드시 낙오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는 토지와 자본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천이었고, 토지와 자본을 가진 자가 사회도 이끌어갔다. 그러나 다가오는 21세기 사회, 정보사회에는 토지나 자본보다 정보가 사회를 운영하는 힘이 되고, 정보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정보란 쉽게 표현하자면 개인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자료나 지식, 경험을 말한다. 그래서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기 위해 컴퓨터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정보사회의 필수도구라고 불려지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모습을 보면, 컴퓨터가 미래의 날씨를 예측해 주고, 산간 벽지의 농촌에서도 도시병원을 찾아갈 필요 없이 원격 의료 진료시스템으로 진단하고 치료도 받으며, 가축에 생긴 질병에 대한 상담도 곧 바로 받을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서 영농에 필요한 장비를 손쉽게 주문,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바로 땅속과 공중에 깔린 통신케이블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농어촌과 도시, 국가와 국가를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가고 있다.

그러면 정보화 사회는 무엇이고, 정보는 무엇인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정보'와 루머가 다른 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보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하면서도 실제로 그 명확한 뜻을 말하려고 하면 제대로 답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과연 정보가 무엇이며, 정보화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말해 정보란 비밀스럽고 확실성이 높아야 하며, 새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 가치가 있어야 하고, 유익해야 하는 것이다.

정보와 유사한 말로는 소문, 유언비어, 루머, 첩보 등이 있다. 이들 모두 비밀스럽거나 새롭다는 면에 있어서는 정보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불확실하고 가치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보라고는 할 수 없다. 단순히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갈증을 풀어주는 정도일 뿐이다. 그리고, 책, 신문, 라디오, TV를 통해서도, 또 길거리를 걷거나 버스를 타서도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보'라는 것이 자신의 생활과 경영에 적합해야만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정보'는 '정보'가 아니라 단순한 자료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처럼 정보라는 용어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해 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날로 복잡 다양한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고, 세계화 되어가고 있어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며, 또 가치 있고, 경쟁력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냐에 따라 결정지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보라는 개념 또는 정보화라는 영역이 새롭게 자리매김해 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얻기를 원하게 되었다. 어쩌면 이러한 정보를 수집, 가공, 보급하는 사업이 사회에서 각광받게 됨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정보사업은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통신과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급속도로 발전하여 가고 있다.

한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나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정보 즉 소문, 유언비어, 루머 등과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정보와의 차이점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소문이나 유언비어 등은 일회성 또는 일과성에 불과하지만 정보는 쌓이면 자료가 되고, 또한 자료가 쌓여서 역사가 되고,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것이 서로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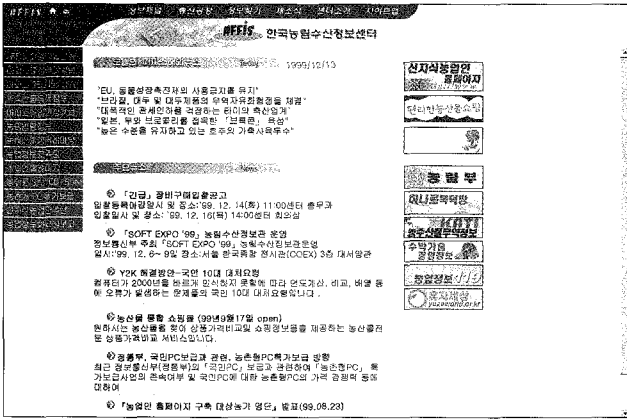
정보화는 단순히 컴퓨터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남에게 알리는 노력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는 '노하우'보다 '노하우'가 중요하다.

그러면 정보화는 과연 무엇일까. 정보화란 다양한 정보들을 발굴하고, 이를 이용자들이 원하는 데로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가공하여 보급하는 수단과 방법을 통틀어서 정보화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정적인 상태에 있는 각종 자료들을 동적으로 변환하여 그 이용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제 우리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하고, 또한 날로 새롭게 변화되고 정보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어느 누구나 정보를 모르고는 살아 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정보화 사회'란 사회 전체의 활동에서 정보와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회이며, 노하우(know-how)보다



http://www.affis.or.kr/

1999-12-13

▲농림수산 전문 통신망인 아피스의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숨어있는 정보를 잘 찾아내어 그것을 잘 활용하는 노웨어(know-where)가 더 중요시되는 사회를 말한다. '정보화'는 단순하게 컴퓨터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남에게 알리는 노력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농업·농촌정보화'란 '정보'와 '정보화사회'가 갖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농업과 농촌, 즉 농림수산 분야에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농산물의 생산·판매·소비과정에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식(知識)인 농업정보와, 이들이 상호 원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산·수집·가공·분산하는 농업정보시스템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농업정보시스템 활용의 이익점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은 농업용 S/W와 정보통신망의 활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농장의 합리적인 경영과 농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품목별 영농S/W를 이용하면 하루 10~20분의 노력으로 농작업 경영일지 작성 및 농업경영 분석, 영농계획 수립 등 영농의사

결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농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농업인간의 상호 정보 교환으로 생산과 출하를 농업인 자율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나아가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농업은 농업인 상호간, 소비자와 생산자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통신을 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수집과 교환이 쉽지 않으므로 타산업보다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농림수산 전문 통신망인 아피스(AFFIS)을 잘 활용하면, 정책, 통계, 뉴스, 가격, 농업인 농사비결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최신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음은 물론 전자게시판이나 대화실 등을 통해 전국에 있는 프로 농사꾼과 영농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도 있고, 소비자와의 농산물 직거래도 가능하다.

한편, 농업정보화가 우리 농업과 농촌에 하루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은 물론이고, 농업관련 기관·단체·업계의 정보 공유와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특히, 농업인 스스로 컴퓨터를 생활화하겠다는 자세 전환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고 생활과 영농과 관련된 각종 소프트웨어가 잘 개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컴퓨터를 멀리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양돈**



박성혜 대리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